

# 14세기 고려에 세운 날란다대학교 指空禪賢의 유적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교수 허홍식(031-709-9107)

heohs@aks.ac.kr

## 머 리 말

1. 1997년까지의 연구논문과 저술
2. 1997년 지공국제학술회의
3. 1997년 후 연구의 심화과정
4. 1997년 이후 회암사의 발굴과 기념관의 기획  
    맺음말-연구의 새로운 확장을 향하여

## 1. 1997년까지의 연구논문과 저술

지공에 관한 연구는 금세기에 이르러 그의 碑文이 주목되고 생애와 사상적 의의에 관해서 연구되었다. 지공은 생존시에 많은 자료를 남겼고, 그의 감화를 받은 계승자에 의하여 저술과 번역서가 간행되었으며, 그의 중요성은 불교의 儀式에 관한 서적에 祖師와 證明法師로 남았다. 그의 행적은 사원이나 유적과 관련된 기행문이나 유품에 대한 설화나 전설로 변질되기도 하였으나 19세기까지 작성된 그에 관한 문헌은 자료로 취급해도 무리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20세기에 이르러 그에 관한 연구는 대체로 네 시기로 나누어서 변화를 살필 수 있다. 첫째 시기는 20세기 초부터 광복까지로 통치권의 상실과 회복에 이르는 시기였고, 주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다음과 같은 7편의 보고서와 논문이 있다.

- 1) 記者輯 「教諭書, 釋王寺寄本」 『朝鮮佛教月報』 17, 1913.6.
- 2) 李能和 「西天提納薄陀尊者碑銘」 『朝鮮佛教叢報』 5, 1917.9. 머리말

서력기원을 전후하여 인도에서 기원한 불교가 동아시아로 전파되었다. 6세기부터 브라만교를 재정비하여 거세게 부활한 힌두교에 의하여 불교는 본거지인 인도에서 점차 쇠퇴하였고, 10세기에 서북으로부터 침입한 이슬람세력에 의하여 결정적인 타격을 받고 인도의 불교는 더욱 몰락하였다. 인도 불교의 성쇠는 교육과 신앙의 중심지였던 날란다(대학과 절의 기능을 가짐)의 성쇠와 같이 하며, 이 대학은 이미 10세기에 이슬람에 의하여 파괴되었다는 관점이 보편화되었다.

이러한 통설과는 달리 14세기 전반에 날란다사의 졸업생인 指空禪賢(이후에는 지공이라 줄임)이 원의 수도를 거쳐 영토의 여러 곳에서 포교하였고, 특히 양자강 상류인 사천과 운남, 그리고 귀주에서 몇 년씩 머물면서 포교하였다. 그는 1326년 3월부터 2년 반 동안 고려에 머물렀고 고려의 승속으로부터 융숭한 우대를 받았다. 大都로 돌아간 다음 라 마교로부터 탄압도 있었으나 그곳에 머물던 고려의 승속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면서 35년 간 활동하였다. 지공에 관한 생생한 기록과 유적이 고려와 원의 옛 지역인 한국과 중국에 많이 남아있고, 유적과 유물이 다수 보존되었다. 인도에서 알려지지 않은 14세기 날란다와 관련된 지공의 발자취는 인도사와 세계불교사의 한 부분을 고쳐서 바로 잡아야 한

다는 학계의 과제라 하겠다.

지공을 계승한 고려 말의 고승과 그의 법손들은 오늘날까지 대한 불교조계종으로 이어질 정도로 중요하다. 국내의 학계에서는 지공의 계승자보다 그와 무관하였던 태고보우의 법손이 이후의 불교계를 주도하였다는 통설이 조계종 종헌에 실려 있다. 사실과 다른 통설이 답습되고 있고, 지공의 계승자에 대한 이론에 대하여 불교사학계에서조차 입을 조심하고 있다. 조계종의 기원과 계승을 선불리 언급하기도 어렵고, 새로운 학설을 수용하기에 학문적 대안이 없는 대한 불교조계종과 불교사학계에서 ‘침묵은 금이다’라는 속담이 최선의 대답이라면 할말이 없다.

1997년에 지공연구에서 두 가지 중요한 사업이 매듭을 지었고, 한 가지 사업이 시작된 해로서 기억될 만하다. 두 가지 매듭지은 사업이란 지공관계 저술의 간행이고, 전해부터 기획된 지공국제학술회의가 사회주의국가인 중국에서도 서남으로 멀리 떨어진 雲南省 昆明에서 개최되었다는 사실이다. 새로 시작한 최초의 사업은 회암사의 발굴조사의 착수였다.

이 글에서는 1977년에 정리되었던 필자의 저술과 학술회의를 되돌아보고, 이후 학계의 진전된 연구, 그리고 적지만 같은 경향의 성과를 밝히고 약간의 반론을 밝히고자 한다. 지공의 권유를 따라서 중창하여 날란다사를 재현하였던 회암사가 명종시의 방화로 소진된 다음에 약간의 유물과 유적의 훼손에 대한 기록만이 조금씩 있었고 광복 후에 지표조사가 있을 뿐이었다. 다만 1997년부터 발굴이 시작되었고, 드러난 유적과 유물의 새로운 자료를 보충하면서 이전의 사원과 다른 몇 가지 새로운 사실을 밝히고자 한다.

필자는 2006년 2월 텔리대학에서 14세기 날란다대학의 존재와 지공의 활동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10년 전 곤명에서 국제학술회의와 저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학계는 그동안 동아시아에서 이룩된 날란다대학과 지공에 관한 연구에 今始初聞이라는 답변이었다. 앞으로 지공이 출생하고 수학과 득도과정에서 거쳤던 인도 여러 지역의 상황을 현지의 도움을 받아 좀더 깊이 검증되고 이를 인도사와 세계불교사에 반영되기를 기대하면서 지공연구의 과제와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 1. 1997년까지의 연구논문과 저술

지공에 관한 연구는 금세기에 이르러 그의 碑文이 주목되고 생애와 활동, 그리고 사상의 특성에 관해서 연구되었다. 지공은 많은 자료를 남겼고, 그의 감화를 받은 계승자에 의하여 저술과 번역서가 간행되었으며, 그의 중요성은 불교의 儀式에 관한 서적에 祖師와 證明法師로 남았다. 그의 행적은 사원의 유적과 관련된 기행문에서 초상화와 유품에 대한 언급이 적지 않다. 또한 설화나 전설로 변질되기도 하였으나, 19세기까지 작성된 그에 관한 문헌은 자료로 취급해도 무리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20세기에 이르러 그에 관한 연구는 대체로 네 시기로 나누어서 변화를 살필 수 있다. 20세기 초부터 광복까지로 통치권의 상실과 회복에 이르는 시기였고, 주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다음과 같은 7편의 보고서와 논문이 있다.

- 李能和 『朝鮮佛教通史』 上, 新文館, 1918, pp.353-361.  
3) 高楠順次郎 「梵僧指空禪師傳考」 『禪學雜誌』 22, 1919.8  
高楠順次郎 「遊方記抄, 梵僧指空禪師傳考」 『大正新修大藏經』 51, 2089-5, 1928.

- 4) 功德山人(權相老) 「懶翁王師의 菩薩戒牒을 보고」 『佛敎』 5, 1924.11.
- 5) 岡教邃 「朝鮮華藏寺의 梵策과 印度指空三藏」 『宗敎研究』 3-5, 1926.
- 6) 忽滑曲快天 『朝鮮禪敎史』 春秋社, 1929, pp.244-254.
- 7) Arthur Waley, *New Light on Buddhism in Medieval India, Melanges Chionis et Buddhiques*, Vol. 1, 1931-1932.

이상과 같이 30년대까지 7편의 자료소개와 논문이 있었고 이후 1980년까지는 그나마 진전이 없었다. 첫째 자료 소개자인 기자는 李能和로 추정되며 이 문서는 이른바 “三和尚敎旨”에 해당한다. 이능화는 그의 저술에서 현존하는 복원비와 다른 지공의 原碑에 가까운 귀중한 자료를 소개하였으나 그가 사용한 자료에 대한 설명이 없으므로 아쉬움을 남긴다. 高楠은 비문을 대조하여 자료를 소개하고 삼화상의 교지와 金守濫이 쓴 檜巖寺重創記를 부록하였다.

權相老로 추정되는 功德山人은 나옹이 소지했던 유품을 金剛山 楡岾寺에서 발견하여 소개하였고, 이 자료는 忽滑谷快天의 저술에도 全文이 실려 있다. 이 金沙로 그린 傳法圖의 일부가 朝鮮古蹟圖譜에도 실려 있고,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다. 岡教邃는 회암사에 있다가 일본으로 유출된 指空의 친필인 梵字般若經을 소개하였으나, 이후로 이 자료는 다시 세상에 소개되지 못하고 있다.

아더 웨일리 Arthur Waley는 영국출신의 동양학자로 중국과 일본의 고전작품을 영어로 번역하여 소개하고, 詩文과 史書에도 뛰어난 논문과 저술을 매우 많이 남겼다. 한국의 고전에 대한 저술은 없었으나, 다만 지공의 비문을 번역하고 인도에는 13세기에 도 날란다사가 건재하고 곳곳에 불교가 적지 않게 살아 있음을 주목한 착안하였으므로 생애의 소개와 더불어 관점이 뚜렷하다. 다만 그는 善本의 碑文을 사용하지 못하고 해석에도 적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아쉬움이 있다.

위와 같이 이 시기의 지공에 대한 관심은 자료의 소개에 크게 벗어나지 못한 느낌이 있다. 오직 아더 웨일리만은 인도불교사에 초점을 두고 이슬람이 침입으로 이미 소멸되었으리라 통설로 삼아온 날란다가 비롯한 곳곳에 불교의 건재를 알려주는 새로운 증거라고 의미를 부각시켰다. 그의 관점은 이후 여러 학자들도 똑같은 사실을 지적하였으나, 그의 논문을 이용하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다.

둘째 시기는 광복으로부터 1985년까지의 침체한 연구시기이다. 광복 후 분쟁의 시련을 겪으면서 자료와 유적이 파손되었고, 지공에 대해해서도 한동안 연구가 없었다. 80년대 전반까지 정치적 혼란과 분단, 그리고 군부의 집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한국학이나 한국사상에 대한 연구열이 높았으나 지공에 대한 연구는 아주 적었다. 다음과 같이 구내에서는 석사논문으로 발표된 2편의 논문만 있고, 중국에서 지공과 관련된 자료의 소개에 불과한 1편의 논문이 고작이었다.

- 8) 金炯佑 「胡僧 指空研究」 『東國史學』 18. 1984.
- 9) 中島志郎 「梵僧指空의 研究」 碩士學位論文, 東國大, 1985.
- 10) 陳高華 「元代來華印度僧人指空事輯」 『南亞研究』 1979.1.

金炯佑와 中島는 모두 석사학위로 논문을 썼고, 몇 가지 새로운 착상이 돋보인다. 전자는 지공의 생애에 대한 비문에는 과장된 내용과 사실성이 적은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비판적으로 이를 수용하려고 노력하였다. 후자는 지공의 사상을 가장 종합적으로 담고 있는 禪要錄의 이본을 대조하고 이를 바로 잡았다. 셋째 논문은 중국 자료 5종과 한국 자료 3종을 간단히 소개하였다. 중국 자료 4종은 지공에 관해서 처음으로 소개된 기록이므로 막중한 가치가 있다. 이 자료는 지공의 생년에 대한 새로운 내용과 海路로 원에 도착하였다는 異說이 실렸으므로 논란의 여지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 자료는 이미 국내외의 논문에서 널리 활용되었었다.

셋째 시기는 1988년부터 1993년까지 필자가 주도한 시기이다. 앞선 둘째 시기는 폐쇄된 동아시아의 정치적 한계로 기존의 연구 성과를 제대로 섭렵하지 못하고 국가간의 학술교류도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에서 향상된 토대를 마련하지 못하였다. 80년대 후반부터 94년까지 한국에서 국제간의 교류도 확대되고 문화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공에 관한 연구에도 좋은 기반이 열렸으나 불교사에 대한 기존의 법통설과 배치된 지공에 대한 관심은 소홀하였다.

필자는 1986년 출간한 『高麗佛敎史研究』에서 懶翁法統說에 관심을 가지고 闍崛山門과 지공의 문도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또한 蒙山德異와 鐵山紹瓊으로 이어지는 원의 臨濟宗과의 교류하였던 사굴산문 지공의 法孫들이 지공과 관련된 직간접의 여러 논문을 새로운 문헌을 이용하여 발표하였다. 조계종의 법통에서 지공을 중요시하고 5년간 그에 관한 자료와 생애, 그리고 사상에 관심을 기울인 결과 다음과 같은 9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 11) 「지공의 사상과 계승자」 『겨레문화』 2, 1988.
- 12) 「指空의 無生戒經과 無生戒牒」, 『書誌學報』 4, 書誌學會, 1991.
- 13) 「懶翁의 思想과 繼承者(上, 下)」, 『韓國學報』 58-59, 一志社, 1990.
- 14) 「指空의 思想形成과 現存著述」, 『東方學志』 61, 1990.
- 15) 「指空의 思想과 麗末鮮初의 現實性」, 『民族史의 展開와 그 文化』, 창작과비평사, 1990.
- 16) 「指空의 原碑文과 碑陰記」 『李箕永博士古稀紀念論叢『佛敎와 歷史』韓國佛敎研究院, 1991.
- 17) 「指空의 遊歷과 定着」, 『伽山學報』 1, 1991.11.
- 18) 「14·5世紀 曹溪宗의 繼承과 法統」, 『東方學志』 73, 1991.
- 19) 「指空의 禪要錄과 禪思想」, 『震山韓基斗博士華甲紀念 韓國宗敎思想의 再照明』, 1993.

첫째 논문은 기존의 연구를 종합하고, 그의 禪要錄과 碑文에 실린 系譜와 行錄이 과장되었다고 취급된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성을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12,14),16),19) 4편의 논문은 국내에서 발견된 새로운 지공관계의 자료를 소개하거나 이미 알려진 자료라도 교감하고 비판하여 사료로 이용하도록 기반을 마련하였다.

13)은 지공의 대표적 문도인 懶翁과 계승자를 조계종의 법통과 관련지어 논증하였다.15),17),18)의 3편 논문에서는 그의 사상이 당시 사회에서 수용되거나 현실적으로 나타냈던 기능을 살폈다. 그의 사상은 戒定慧의 三學을 중요시한 禪敎未分인 경향이 강하고 특히 無生戒와 無心禪을 강조하여 불교의 본령에 충실하고 현실에 소극적이므로 남전불교의 특성과 상통한다고 제안하였다. 그의 無生戒는 肉食과 현실참여가 강화된 원의 불교계에서 수용되기 어려웠으나, 고려에서는 복고적인 불교로 환원시킴으로써 성리학자들과도 갈등을 피하고 조선시대에도 그의 계승자가 불교계를 주도하였다는 특성이 있었다. 이러한 견해는 그동안 불교사의 통설로 자리 잡았던 太古法統說과 다른 체계이었다. 이를 다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한국 불교의 사상이나 실천에 끼친 지공의 영향은 매우 크지만 이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다.
- 2) 지공은 14세기 초 訖蘭大대학의 졸업생으로 고려의 檜巖寺를 訖蘭大사의 후신으로 중창하기를 바랐고, 그의 문도에 의하여 어느 정도 실현되었다.
- 3) 지공과 그의 門徒는 고려말부터 한국불교계를 주도적으로 이끌었고, 오늘날까지 계승되고 있다.
- 4) 한국불교를 탐에 비유한다면, 삼국의 교학이 基壇을 이루고 남종선이 그 위에 수용되었으며, 10세기부터 비롯된 조계종 사굴산문이 中臺를 이루고, 중국의 임제종이 屋蓋部를 지공의 三學이 上輪部를 裝飾했다.
- 5) 지공에 관한 많은 문헌과 유적이 보물이나 史蹟으로 이미 지정되었고, 새로 발견되거나 앞으로 추가해서 지정될 대상이 많다.

6) 북전불교에서는 戒律과 敎學이 발전하였고, 남전불교에서는 참선위주의 수양 방법이 발달하였다. 선종의 기원은 남전불교에서 찾을 수 있다.

넷째 시기는 94년부터 1997년까지로 지공에 관한 연구는 짧은 기간에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중국과 일본에서도 지공에 관한 성과가 2편의 논문으로 발표되었다. 국내에서 지공을 위시한 삼화상에 관한 학술회의가 개최되었고, 발표요지를 토대로 정리된 단행본에서 지공에 관한 논문을 합쳐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20) 北村高外 3人 「イント佛教傳播史の研究(1)-イント僧指空とその事蹟」 『龍谷大學佛教文化研究所紀要』 33, 1994.pp.104-123.

21) 祁慶富 「指空游滇建正續寺考」 『雲南社會科學』 1995-2.

22) 祈慶富 「指空의 中國遊歷考」 『伽山學報』 5, 伽山學會, 1996.

23) 楊學政 「指空弘揚中國西南禪學考」 『雲南社會科學』 1996-2.

24) 이병욱 「指空和尚 禪사상의 특색」 『삼대화상연구논문집』, 도서출판佛泉, 1996.

25) 허홍식 「指空和尚에 관한 資料와 國內外的 研究現況」 위와 같은 책.

26) 하정룡 「西天提納薄陁尊者浮屠銘并序에 관한 一考察」 위와 같은 책.

20)은 비문을 관한 1945년 이전의 교감과 주석을 재정리하면서 일본어로 번역하였으나 아더 웨일리의 논문과 패전 후의 연구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21) 22)는 선행된 논문 지공이 중국에 남긴 발자취에 국한시켰으나 중국의 史書와 地誌를 이용하여 깊이 있게 실증하였다. 특히 지공의 비문에 실린 중국의 지명과 인명, 그리고 정치와 종교적 상황을 방증사료를 이용하여 철저히 규명하면서 사실성을 증진시켰고, 출생연대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23)은 지공이 운남에서 활동한 시기와 현지답사와 유물을 통하여 密敎思想이 강한 특성을 지적하였으나 새로운 자료와 기존의 논문에서 제시된 견해와의 차이점을 제시하지 않았다. 24)-26)은 지공에 관한 연구를 紹介하거나 선사상과 비문의 譯註로서 미비한 점을 보완하였으나 새로운 관점이 크게 제시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지공에 관한 자료는 보유한 국가에 따라 국내와 국외로, 형태에 따라 문헌자료와 비문헌자료로 나눌 수 있다. 문헌자료는 다시 문자와 내용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내용에 따라 그가 직접 범자자료로 쓴 저술이나 寫經이 있고, 漢字로 남긴 署名과 타인이 그에 관해서 남긴 간접자료로 나눌 수 있다.

그는 漢字에 익숙하지 않았으므로 梵字로 쓴 자료를 제외하면 중국어나 범어를 한자음으로 기록한 자료는 주변의 학자나 고승의 힘을 빌렸음에 틀림이 없지만 직접자료로 포함시키도록 하겠다. 그가 직접 쓴 문헌자료는 번역서와 저술서, 그리고 사경으로 나누어진다. 이를 분류하여 갈래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A. 文獻資料---a. 사용언어별--a) 漢字 b) 梵語 c) 梵語音寫漢字

b. 내용별---a) 直接---(a) 著述 (b) 翻譯 (c) 寫經  
b) 間接

B. 비문헌자료 a. 유적--檜巖寺址, 華藏寺址, 神勒寺址, 安心寺址

b. 유물--影幀

이상의 지공 관계자료에서 비문헌자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종합적으로 정리된 목록조차 없었다. 다만 그가 유력하면서 교화하거나 머물렀던 지역을 철저히 답사하면 적지 않게 보완되리라 추측된다. 그의 초상화는 계승자인 懶翁과 無學과 짝을 이루어 三和尚의 영정으로 봉안된 곳이 많다. 특히 檜巖寺,

神勒寺, 華藏寺, 通度寺, 海印寺 등지에서 확인되고 그밖에도 적지 않다. 山字冠을 쓰고 수염을 기른居士의 모습이 대부분이므로 그의 비문에 실린 묘사와 상통한다. 다음은 비문헌자료를 제외한 문헌자료와 이본을 열거한 목록이다.

지공관계의 문헌자료 목록

일련번호	분류번호	자료명(저술년대,간행년대.전거)
1)	A-a-a),b-a)-(a)	妙德戒帖 (1326.5,대구 개인소장)
2)	A-a-a),b-a)-(a)	佛祖傳心西天宗派指要(서울대소장 사본 1326.8,고려대본 1474 <sup>1)</sup> .)
3)	A-a-a),b-a)-(a)	懶翁戒帖,傳法圖(1327년,楡岾寺舊藏)
*	A-a-a),b-a)-(a)	覺慶戒帖 (132.5, 해인사소장 법수사비로자나불복장발견)
4)	A-a-a),b-a)-(b)	翻譯 六經(1330년 1월 초간.1375년 5월 중간,祇林寺所藏)
5)	A-a-a),b-a)-(b)	大佛頂...正本一切如來大佛頂白傘蓋摠持(기림사육경)
6)	A-a-a),b-a)-(b)	如意呪...正本觀自在菩薩如意輪呪(기림사육경)
7)	A-a-a),b-a)-(b)	大悲呪...科正本觀自在菩薩大圓滿無導大悲心大陀羅尼(기림사육경,1478)
8)	A-a-a),b-a)-(b)	尊勝呪...科正本不頂尊勝陀羅尼啓請(기림사육경,于瑟泥沙毘左野陀羅尼 1468)
9)	A-a-a),b-a)-(b)	梵語心經...科中印度梵本心經(기림사육경)
10)	A-a-a),b-a)-(b)	施食眞言...觀世音菩薩施食(기림사육경,1698)
11)	A-a-a),b-a)-(b)	文殊舍利最上乘無生戒經(1353년 초간.홍무 19년 ;1386년 이색발)
12)	A-a-a),b-a)-(a)	無生戒法 (1357년, 호림박물관소장)
13)	A-a-a),b-b)	辛卯年(1351)上指空和尚頌(白雲和尚語錄 卷下 佛全, 6-659) 甲午(1354)三月日 在安國寺 上指空和尚(白雲和尚語錄 卷下 佛全, 6-659) 己酉(1369)正月日 寓孤山菴指空眞讚頌 2(白雲和尚語錄 卷下佛全, 6-661)
14)	A-a-a),b-b)	覺宏 : 懶翁和尚行狀(1376)
15)	A-a-a),b-b)	李穡 : 西天提納薄陀尊者碑銘 (牧隱文藁)(1377)
16)	A-a-a),b-b)	李穡 : 西天提納薄陀尊者碑陰記 (退耕堂全書)(1383)
17)	A-a-a),b-b)	李穡 : 安心寺指空懶翁舍利石鍾碑 (1384)
18)	A-a-a),b-b)	李穡 : 檜巖寺修造記(牧隱文藁:고려말)
19)	A-a-a),b-b)	金守溫 : 檜巖寺重創記(拭疣集 :朝鮮 世祖時)
20)	A-a-a),b-b)	三和尚教旨(조선정조시)
21)	A-a-a),b-b)	趙秀三 企齋集(朝鮮 純祖時)
22)	A-a-a),b-b)	李聖儀 祈福偈 22권 7책(朝鮮古書目錄:羅麗藝文志)
23)	A-a-a),b-a)-(b)	西天提納薄陀尊者偈頌 권수미상 朝鮮古書目錄 古書刊行會刊
24)	A-a-b),a-c)	梵字般若經(日本으로 인출됨)

그밖에도 한국에는 단편적으로 그의 행적을 전하거나 서명만 전하지만 실제 서적은 확인되지 않는

1)이밖에도 연세대와 동국대에도 소장되었고, 개인으로는 南權熙교수와 韓基斗교수가 소장한 默潭舊藏寫本도 있다. 개인소장본은 다른 책과 합쳐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나 같은 판본에 속한다.

문헌도 매우 많다. 金時習과 南孝溫이 남긴 금강산기행문에는 지공과 관련된 전설과 유적을 적지 않게 수록하였다. 조선의 방대한 기록인 實錄이나 敬一의 桐溪集을 위시한 고승의 문집에도 지공이 간략하게 언급된 부분은 적지 않다. 釋門儀範에 이르기까지 수렴된 각종의 儀式集에도 祖師와 證明師로서 언급된 부분이 적지 않으나 생애와 관련된 직접적 서술은 아니다.

중국은 한국 다음으로 지공에 대한 많은 문헌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5종만 알려져 있고, 아직 지공이 남긴 직접자료가 아니고 타인의 간접자료 뿐이다. 지공과 관련된 비문헌 자료인 유적과 유물은 한국보다 훨씬 많으리라 유추되지만 조사되거나 확인된 地點은 많지 않다.

- 25) A-a-a),b-a)-(b) 楊興賢 : 獅山正續寺碑
- 26) A-a-a),b-a)-(b) 至仁 : 澹居稿 권 1, 指空禪師偈序,
- 27) A-a-a),b-a)-(b) 權衡 : 庚申外史 卷下(至正十九年)
- 28) A-a-a),b-a)-(b) 宋濂 : 寂照圓明大禪師壁峰金公舍利塔碑(宋文憲公全集 卷 11)
- 29) A-a-a),b-a)-(c) 危素 : 文殊舍利最上乘無生戒序 癸巳(危大樸續集)

위의 자료는 진고화의 논문에서 소개되었으며, 지금까지 국내에서 이용되지 않은 문헌이므로 중요하다. 다만 위에서 마지막 소개된 위소의 無生戒序는 경문과 함께 좀더 완벽한 서문과 발문이 갖추어진 고려의 간본이 국내에 전하고 논문에 이용되었으므로 다른 자료에 비하여 가치가 떨어진다.

지공은 중국에서 가장 오랜 기간 살았고 입적하였으므로 위에 열거한 목록은 많은 편은 아니고 모두가 간접적인 자료라는 한계가 있다. 그가 교화하였거나 살았던 地域이나 寺院을 조사하면 앞으로 적지 않게 직접 남긴 유물이나 저술도 발견되리라 기대된다.

일본에는 중국 다음으로 지공관계의 유물이 많다. 가장 중요한 유물은 화장사에 보존되다가 1920년대에 日本王室博物館으로 이전된 華藏寺의 梵字般若經을 들 수 있다. 그밖에도 적지 않은 指空碑의 拓本이 天理大의 今西文庫와 淺見文庫의 目錄에서 확인된다. 淺見文庫는 제이차대전 후 미국으로 넘겨져 캘리포니아대학 버클리분교에 있고, 여기에 현존하는 지공비의 탁본이 所藏되었으나 사료적 가치는 크지 않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30) A-a-a),a-a)-(a) 梵字般若經 (日本上野博物館)
- 31) A-a-a),b-a)-(b) 華藏寺指空定慧靈照之塔 拓本(今西文庫,p.99)
- 32) A-a-a),b-a)-(b) 檜巖寺指空古碑斷片 同陰記 拓本(今西文庫,p.126)
- 33) A-a-a),b-b) 李穡 : 西天提納薄陶尊者碑銘 (淺見文庫)(1377)

이상의 자료와 기존 연구는 1997년에 간행한 필자의 저서에 수렴되었다.<sup>2)</sup>

## 2.1997년 지공국제학술회의의

1997년 8월 10일부터 한국 불교계의 최대중단인 대한불교조계종의 총무원과 중국 雲南省 社會科學院은 공동으로 昆明에서 9일간 한중지공학술회를 개최하였다. 이보다 앞서 필자는 1996년 말 북경대학에 출장 갔던 틈을 이용하여 중국에서 지공연구를 촉진시킨 북경 중앙민족대학의 祁慶富교수를 만나서 雲南省 학계의 지공연구에 대한 열성과 연구현황을 듣고 한국과 중국 운남성의 공동학술회의를 타진하였다. 1997년 3월에는 봉선사교무를 담당한 默庵光賢과 운남성 사회과학원을 방문하여 원장 何耀華 교수와 종교연구소장 楊學政 교수를 만나 학술회의의 제반 준비를 위한 예비조사와 협약을 맺었다.

2) 許興植 『高麗로 옮긴 印度의 등불』 -潮閣, 1997.

정작 학술회의에서 중국에서 학술회의를 뒷받침한 기경부교수와 한국의 목암스님이 사정으로 불참하여 필자만이 이를 기획하고 마치기까지 참여한 증인이 되었다. 한국의 참석자는 학술발표자 5人, 顧問 月雲스님과 團長 性陀스님, 代表와 總務, 그리고 涉外를 포함한 10人을 합쳐 모두 15인이었다.

운남성은 중국에서 기후와 자원이 우수하면서도 서남부에 위치한 奧地로서 개발이 늦었다. 鄧小平의 집권 이래 시작된 개방과 개혁의 바람은 이곳에도 늦게나마 불어왔고, 지공이 활동한 正續寺에도 들어 닦였다. 이 절은 운남성의 중심지인 昆明에서 북북서에 위치한 楚雄彝族自治州에 속한 武定縣 북쪽의 獅山에 자리하고 있으며, 곤명에서 泗川으로 나아가는 목줄과 같은 지역이다. 본래 사천은 三國志演義에서 蜀漢의 중심이었듯이 중국을 三分할 정도의 중요성이 있고, 배후지로 운남을 확보하기 위하여 諸葛亮이 猛獲을 七縱七擒하였다고 전하듯이 이민족을 정복하고 심복으로 만들기 위하여 무력과 기다림이 참을성 있게 점철된 유서 깊은 전통성이 있다.

中原이 西安과 洛陽을 의미한다면 황하의 상류와 하류는 그 연장선상에 있었다. 群雄들은 중원에 이어 江南과 泗川을 확보하면 천하를 장악했다고 공언하였다. 운남은 천하를 장악한 다음 단계의 완성을 위해 확대되는 지점으로 주로 사천의 확장선상에서 파악된다. 이는 공산당 중국의 통일과정에서도 반복되어, 이 지역이 1952이년에야 공산화되었을 정도로 국민당 정부에게는 대만과 더불어 제2의 보루였던 현대사에서도 재확인된다. 지금도 운남 남서부의 태국의 북쪽 밀립에는 국민당의 잔재 세력인 큰사(大師)가 치앙마이에 잔존하면서 이를 입증하고 있다.

운남은 소수민족의 무대이고 중국사의 일부로 편입되었던 원대 이후에도 오랫동안 “土司”라 불리는 酋長이 행정을 장악하고 군사권만 漢族에게 유보한 상태였다. 운남지역의 중국화과정은 사천의 漢族이 주로 담당하였다. 운남의 지배층은 사천으로 자제를 유학 보냈고, 사천의 지식인이 이곳에 수많은 발자취를 남겼다. 몽고가 운남을 장악한 다음 사천의 지식인이 이곳을 활동무대로 옮겨왔고, 지공이 蜀에서 이곳으로 옮겨와 활동무대로 삼은 경위도 같은 맥락의 연장에서 이해된다.

운남성은 무정현 獅山을 觀光特別區로 지정하였다. 운남은 문화혁명의 바람도 공산화나 개혁개방과 마찬가지로 延着하였다. 이 때문에 이 지역 소수민족은 다른 지역보다 전통문화를 비교적 잘 유지하였고, 그들의 문화와 종교시설도 다른 지역에 비하여 적게 파괴당하였다. 운남성정부가 종교시설의 하나인 正續寺를 복원하고 指空塔을 세우며 불교와 관련된 지공 학술회의를 허가하고 지원하려는 의도도 사천에서 운남을 거쳐 치앙마이를 통하여 방콕에 이르는 철도의 부설계획과 무관하지 않다. 한국의 대통령이 참석한 마닐라의 아스팍회의에서도 이 지역의 개발과 철도부설이 탁상에 올랐었다.

지공학술회의는 한중 양국의 학자들이 지공에 관한 관심이 커지면서 비롯되었다. 필자는 1994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夏期 한국문화강좌에 참가한 북경 중앙민족대학 기경부교수를 만나 그가 전공하는 중국서남지역에서 지공이 교화한 사실을 알려주었고, 그는 귀국한 다음 운남성의 地誌에서 獅山正續寺碑를 찾아 이를 필자에게 보내왔다. 필자는 중국에도 지공에 관한 연구가 진전되도록 자료를 논문으로 정리하도록 부탁하고, 이를 번역하여 伽山學報에 실었고 한편 운남성 사회과학원의 학술지에도 이를 실었다.

운남성에서는 이를 기회로 사산정속사를 관광지로 정비하고 지공의 부도탑에 이어서 정속사비를 세웠다. 1997년은 운남성에서 “관광의 해”로 정하고 학술회의를 유치하였다. 운남성에서는 副省長과 黨副書記가 가장 요인이었고, 院長을 위시한 社會科學院의 宗教研究室과 歷史研究室의 學者와 外事處 辦公室의 임원이 학술과 운영을 담당하였다. 학술적으로는 원장과 부원장은 물론 종교연구소와 역사연구소의 소장교수 및 연구원이 담당하였다. 그밖에 운남대학의 교수와 楚雄市의 간부, 종교단체의 담당자가 학자로 참가하였으나, 논문은 사회과학원 교수의 수준이 주도적이었다.

운남성에서는 경제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학술과 관광을 결들여 奧地의 개방을 추진하려는 의도가 곳곳에 나타났다.<sup>3)</sup> 또한 운남성에서는 불교를 우대하고 “97년 관광의 해”에 불교를 이용하여 관광을 유

3) 王天璽 (中共雲南省委副書記, 省委宣傳部部長) : 在 “中韓,韓中指空研究學術討論會” 上的 講話“



치하려는 의욕이 표출되기도 하였다.<sup>4)</sup> 대체로 운남성의 태도는 불교를 내세워 문화교류와 관광사업, 그리고 경제개발로 발전을 모색하였으며 그들의 염원은 이러한 순서의 역순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sup>5)</sup> 한국의 참가자도 이를 예상하였으나 불교와 학술교류가 우선이었고<sup>6)</sup> 앞으로 경제인의 합작도 예상하고 있었다.

학술회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운남성은 종교의 하나인 불교를 지원한 셈이고, 사회주의를 지속한 중국정부로는 파격적이었다. 필자가 운남성 사회과학원과 학술회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겪은 몇 차례의 어려움도 종교에 대한 습관화된 인습의 태도였다. 중국의 당국은 이번 회의를 불교행사라는 느낌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학술회회의 명칭을 불교라는 용어를 쓰지 않도록 처음부터 심려하였고, 한국에서는 스님을 단장이나 고문으로 참석자를 구성하였으나 이 분들이 다수 참석하기를 싫어하였고, 심지어 상석에 앉히기조차 꺼려하였다. 회의장소를 숙소의 호텔에 딸린 회의실로 정하였으며, 주민과 접촉할 기회를 줄이고 위안오락의 밤으로 호텔소속의 가무단과 간부만 참석하고 접촉을 차단하였다. 정숙사에서조차 사찰에 연결된 호텔로 숙소를 삼았고, 大理의 숙소도 주민과 접촉이 어려운 외진 곳을 배려하였다고 판단된다.

중국에서는 최근까지도 종교복을 입은 종교인이 시내의 출입하지 못하도록 금하였다. 예를 들면 중국의 승은 僧服을 입고 절밖에 나오거나 私服을 입고서도 시내에서 포교활동을 할 수 없다. 한국의 승려나 신부와 수녀도 중국의 여행에는 복식을 사복으로 바꿔야 입국시키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의 행사는 이런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활동을 제한 받지 않았고, 실제로 스님을 중심으로 구성된 한국 측의 단장과 고문은 시내에서 승복을 벗지 않고 활보하였다. 불교는 개방 이후 기독교나 천주교보다 소극적이고 순응하므로 위정자의 호감을 가지게 하였으므로 단속이 적다는 풍문이 있었다.

학술회의에서 가장 두드러진 학술적 성과는 운남성 사회과학원에 소속한 교수와 연구원의 발표였다. 이들은 지공의 비문에서 중국과 관련된 사항을 검증하고 지공이 운남지역에서 펼친 교화활동을 강조하였다. 특히 獅山 正續寺와 관련시킨 지공의 활동에 대한 연구는 行錄을 인용한 이색의 비문에 실리지 않았고, 오로지 元代의 楊興賢이 남긴 獅山正續寺記에만 수록되었으며 이를 이 지역의 彝族 土司와 관련지은 연구가 돋보였다.<sup>7)</sup>

獅山正續寺記는 이 지역 토사에 대한 연구에서 처음 인용되었으나<sup>8)</sup> 당시 지공이란 고승의 활동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았다. 후에 지공에 관한 한국의 연구에 자극받아 이 자료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李穡이 지은 비문에서 중국에 유력과 활동을 다각도로 검증한 연구성과가 나타났다.<sup>9)</sup> 이에 촉발되어 운남성 사회과학원 종교연구소장이 직접 논문을 쓰고 10) 연구원을 집중적으로 참여시켜 지공은 물론 그가 관련

끝부분의 요점을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正續寺와 檜巖寺는 모두 指空이 세웠으므로 姊妹寺이고 友誼를 繼承하여 經濟와 觀光, 그리고 學術交流가 緊密해지기를 바란다.

4) 戴光祿 (雲南省人民政府副省長): 在“中韓,韓中指空研究學術討論會”上的 歡迎辭.

5) 何耀華 (雲南省社會科學院院長, 會議組織委員會 主席): 中韓,韓中指空研究學術討論會 開幕詞.

6) 李性陀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장, 단장): 指空國際學術會議 인사말씀: 인도와 중국과 한국에서 차지하는 지공의 위치와 영향은 중요하다.

許興植 (韓國精神文化研究院 教授, 發表代表): 인사말씀: 지공의 평화와 자연보호의 정신을 불교와 현재 세계의 친선과 발전의 정신적 기초로 삼도록 하자.

金英淑 (韓國服飾文化研究院院長, 研究代表): 인사말씀: 지공의 정신을 받들어 문화의 교류에 힘쓰자.

7) 祈慶富 「西僧指空禪師與彝族」 (楊學政 主編 『中韓,韓中指空研究學術討論會資料集』 1997,11)

8) 何耀華(武定鳳氏本末箋證) 雲南民族出版社,1986,pp.77.

9) 祈慶富 「指空游滇建正續寺考」 『雲南社會科學』 1995-2.

祈慶富 「指空의 中國遊歷考」 『伽山學報』 5, 伽山學會, 1996.

10) 楊學政 「指空弘揚中國西南禪學考」 『雲南社會科學』 1996-2.

된 정속사를 조사하고 관련자료를 정리한 특집호를 간행하였다.<sup>11)</sup> 특집호에는 많은 연구자가 참여함으로써 지공연구의 중심이 한국에서 운남성으로 옮겨진 분위기였다.

운남성에서는 正續寺와 이를 포함한 獅山一帶를 觀光特別區로 설정하고 獅子山賓館(호텔)을 지었으며, 운남성 사회과학원은 이러한 학문적 분위기를 활용하여 관광사업으로 연결시키려는 학술회의를 1996년 11월 11일부터 16일까지 이곳에서 개최하였다. 이 회의의 보고서는 사회과학원 학자의 학술논문을 포함하여 이를 지원한 省政府와 楚雄市 武定縣에 이르는 공산당과 행정부서 간부들의 글과 참가자 명단은 물론 사진까지 곁들인 자료집으로 제작되었으나<sup>12)</sup> 이를 복사하여 다량으로 제작하지 않았다.

이 회의와 자료집 및 경험을 토대로 한국의 학자를 유치하여 지공학술회의를 개최하고 이 지역에 해외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구역으로 부각시켰다고 하겠다. 중국은 오랫동안 폐쇄된 사회주의 국가에서 자본주의를 절충한 개방정책을 취하는 과정에서 국민을 점진적으로 외국인과 접촉시키기 위하여 특별구를 제정하였으며, 운남에서도 이를 채택하였다고 하겠다.

필자는 중국의 개방화 정책은 동아시아의 발전에 도움되는 방향이고, 한국은 분단의 멍에에도 불구하고 제국주의 팽창으로 금세기에 동아시아에 불행을 주었던 일본보다 우호적인 협력이 가능하리라 확신되었다. 학술대회는 운남의 개방과 경제개발을 위한 전초사업으로 계획되었고 한국의 참여로 내실을 다졌다고 하겠다. 한국의 참가자도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양국의 학술교류를 시작으로 중국측의 개방과 경제개발에 한국 경제인의 참여와 종교인의 활동으로 확대되리라 기대된다.

1997년 학술회의의 꽃은 연구 논문이었다. 이 가운데 우수한 내용도 많았으나 수준 미달의 논문도 적지 않았다. 필자는 지공에 대한 많은 논문을 이미 발표하였고, 이를 간행하여 지참하였으나 대표의 발언사에서 간략히 이를 언급하였다. 이보다 앞서 이를 기증받았던 봉선사와 몇몇 교수들도 이를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발표자가 필자의 책에 대한 비판은 없었다.

운남성 사회과학원 종교연구소에서 1995년에 지공을 특집호로 학술지를 간행하였고,<sup>13)</sup> 여기에는 지공에 관한 연구와 현지조사 및 자료를 실었으나 운남지역을 주로 다루었고, 다른 지역에 대한 배려가 적었다. 또한 운남성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 대한 기존의 연구성과를 수렴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다음해인 1996년 11월 12일부터 2일간 지공에 관한 학술회의를 열었고, 그때 발표한 논문에서 이번 학술회의 발표자를 엄선하였으므로 같은 주제로 3번씩 발표하는 학자가 포함되었을 정도로 만반의 준비를 거쳤다. 이에 비하여 한국에서는 5인의 발표자 가운데 이병욱을 제외한 4인은 지공에 관해서 최초로 논문을 발표하였고, 그동안 검토와 논의를 거치지 못하였으므로 다소 불안감이 있었다. 다만 한국내에 문헌자료와 유적과 유물이 중국보다 풍부하고, 학술지를 통하여 중국에서 간행된 모든 논문은 이미 철저히 소개하였으므로<sup>14)</sup> 다소 안심되었다.

11) 雲南社會科學院 宗教研究所 『雲南宗教研究』 1995-2, 필자는 기경부의 전제 논문과 같은 시기에 간행된 이 학술지의 선후 관계를 정하기가 어려웠으나, 종교연구소의 특집호에 기경부의 논문이 인용되었으므로 선후를 자의로 짐작했다. 실제로 기경부교수와 필자가 만나 가산학보에 실린 지공의 유력과 정착을 제공한 시기가 1994년 여름이었으므로 종교연구소에서 지공에 관한 연구도 이를 계기로 촉발되었다고 보고자 한다. 다만 종교연구소장 양학정교수와 연구원의 기민한 조사활동이 전개되었음을 특집호를 읽고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필자가 이 특집호를 처음 읽은 시기는 1997년 3월 23일 이었다.

12) 釋指空暨雲南楚雄州發展旅游業 『全國學術研討會資料庫』 中國雲南省社會科學院圖書資料中心 1996年 12月 10日製成.

이 자료집을 완료한 시기는 1996년 12월 10일이라 하였으나, 이 무렵 대부분을 편집하고 일부분을 보충하였던 시기는 1997년 3월말 이후라고 추측된다. 왜냐하면 필자가 1997년 3월 23일에 제공한 자료를 발췌하여 pp.7-9 의 3면을 채웠기 때문이다. 이 자료집은 1997년 8월 12일 저녁에 楊學政 사회과학원 종교연구소장으로부터 받았다.

13) 雲南社會科學院 宗教研究所 『雲南宗教研究』 1995-2.

14) 허홍식 「指空和尚에 관한 資料와 國內外의 研究現況」 『삼대화상연구논문집』, 도서출판佛泉, 1996.

이번 발표회에서 몇 가지 쟁점이 부각되었고 소수의 의견이나마 새롭게 제시된 견해도 있었다. 발표자별로 내용상 주목할 만한 견해를 소개하는 방법도 있겠으나, 주제별로 견해의 차이점과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지공에 관한 자료와 기왕의 연구성과를 충분히 이용하지 못한 아쉬움은 중국측에 더욱 심하였다. 그동안 중국은 폐쇄된 사회였으므로 국외의 학술지와 서적이 수입되지 못한 때문이라고 짐작되었다. 중국보다 여건이 좋았던 국내 학자의 발표에서도 기존의 논문과 자료를 간과한 사례가 없지 않았다.

발표내용 가운데서 지공의 俗名과 法名, 그리고 号(號)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아쉬웠다. 특히 범어와 音寫漢字와 漢語의 해석에 대해서 좀더 깊은 천착이 필요하였다. 指空은 號이고 漢譯이며 로마자화한 산스크리트어로는 Sunyadiya이며, 梵語音寫는 蘇那的沙野이다. 그는 호를 그의 스승인 랑카의 普明으로부터 받았다.

그의 法名은 提納薄陁 이다. “提納”의 발음은 “다나”에 가깝다는 현존 禪要錄에서 확인된다. 이는 로마자화한 범어로는 Dhyana-bhadra이고 漢譯은 禪賢이다. 禪賢을 安心寺舍利石鐘記에는 “善賢”으로 쓰였으며 잘못으로 추측된다. 그의 法名은 날란다에 출가하여 수계를 받은 다음부터 사용하였으며 律賢이 부여하였다고 짐작된다. 그의 俗名은 嚩恒羅哆婆이였으며 梵語音寫라고 하겠으나 의미에 대해서 아직 漢字로 규명되지 못하였다. 출가전에는 속명이 불렸고, 출가하여 수계한 다음부터 法名이 사용되었고, 득도한 다음에는 호가 널리 쓰였다고 하겠다.

지공의 출생 년대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양하다. 雲南悟는 장님이었고 말은 할 수 있었으나 7세에 출가했을 때 이미 지공의 나이는 61세였고, 오가 75세였을 때 입적했다고 하였다. 지공의 입적한 연대가 1363년임에는 異論이 없으므로 128세까지 생존하였고 1236년에 출생하였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는 인간의 수명으로 거의 불가능하므로 한국의 가장 정평 있는 사전에는 출생년대 미상으로 실려있다.<sup>15)</sup> 비문의 운남오를 무시하고 75세로 계산한 禪學大辭典<sup>16)</sup>이 있고 이를 따르는 佛光大辭典 등이 있으며, 이에 의하면 1289년에 출생하였다. 또한 108세를 살았다는 庚申外史와 <sup>17)</sup> 300세 이상을 살았다고 전하는 宋濂의 文集 등이 있다.<sup>18)</sup> 필자는 그가 20세에 스리랑카를 떠나 곳곳에서 머문 시기와 白雲和尚語錄에 의하여 64세에 입적하였다고 계산하였다.<sup>19)</sup> 그의 출생년대에 대해서는 중국에 도착한 시기와 연결시키면서 깊이 있게 검토되었다.

위의 여러 견해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1300년 설과 1289년 설을 중점으로 살피고자 한다. 이 두 가지 견해는 인간의 수명으로도 개연성이 있고 이에 뒷받침한 자료도 뒷받침되기 때문이다. 1289년설은 기존의 사전뿐 아니라 사산정속사기를 이용하면서 중국의 학자들에 의하여 지지를 받았다. 1300년설은 지공의 유력한 시기와 경한의 백운화상어록에 의하여 필자가 처음으로 제시하였고, 국내의 학자들이 따른 예가 많으나 좀더 새로운 근거는 보충되지 못하였다.

1289년설은 이색이 쓴 지공의 비문에도 운남오가 75세였을 때 지공이 입적하였다고 기록되었을 뿐 지공이 75세라는 뜻은 아니므로 문제가 있다. 다만 이색은 비문을 지을 당시 건강이 나빴으므로 착오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75세는 126세보다 인간의 수명으로 개연성이 있다. 중국 측에서는 75세설이 실린 대만에서 편찬된 불광사전만 언급하였으나 일본의 禪學大辭典을 답습한 사실을 간과하였다.<sup>20)</sup>

15) 『韓國人名大事典』 新丘文化社, 1976. p.1101(?-1363)  
吳杲山 『佛光大辭典』 1982, 제6책, p.239, 1101(?-1363)

16) 駒鐸大學 『禪學大辭典』 大修館書店, 1978.p.680.

17) 權衡 『庚申外史』 卷下 (至正十九年)

18) 宋濂: 寂照圓明大禪師壁峰金公舍利塔碑 (宋文憲公全集) 卷 11)

19) 許興植 전계서, p.42.

20) 慈怡主編 『佛光大辭典』 臺灣 書目文獻出版社, 1989.

특히 사산정속사비의 내용을 근거로 지공이 1315년부터 1320년까지 정속사를 중창하였다고 해석하고 필자의 64세설을 따르기 어렵다는 견해가 제시된 이래<sup>21)</sup> 75세설을 증명하려는 운남의 학자들이 이를 추종하는 학자가 증가하였다.

지공이 중국에 도착한 시기에 대해서는 출생년대와 다름없이 연구자에 따라서 견해가 엇갈린다. 필자는 白雲和尚語錄과 그의 비문에 실린 행록에 의하여 1320년에 동방에 도착하였다고 밝혔다. 동방에 도착하였다는 중국의 위치는 티베트라 하겠으며 이를 따르면 21세였고 1320년에 해당된다. 초기의 중국학자들은 지공이 중국에 처음 도착한 시기를 필자와 같은 견해로 잡기도 있었으나, 사산정속사기에 의하여 1315년부터 20년까지 정속사건물을 창건하였다는 해석에 일치시키기 위하여 이보다 훨씬 앞선 시기로 올려 잡았다.

사산정속사기에 의하여 지공의 정속사 중창하였다는 해석은 몇 가지 의문을 남긴다. 지공이 蜀보다는 운남에서 오래 있었음에는 틀림이 없으나 5년이나 정속사에 머물면서 더구나 정속사를 중창하였을 정도라면 이색의 비문에 정속사가 수록되지 않았을 까닭이 없다. 또 하나 지공은 고려에 오기까지 한곳에 오래 머물지 않았다. 더구나 그는 사원을 중창하는 불사를 지휘할 정도의 실천적인 경향이 어느 곳에서도 찾아지지 않는다. 고려의 회암사를 중창하였다고 해석한 학자도 있으나<sup>22)</sup> 占指만 하였을 뿐 전혀 중창불사에 간여하지 않았다. 인도나 스리랑카에서 수도한 그의 속성으로 불사에 손댈 적극성을 보이기 어려웠다.

사산정속사기에 의하면 사천출신의 승 朝宗이 불사를 담당하였고 지공의 도력에 감화를 받은 지방관이 佛糧을 지원하여 흠어지지 않도록 기금을 마련한 사실을 밝힌 내용이고, 비음기는 전혀 남지 않았다. 비의 건립연대도 비의 내용을 참작하여 후에 1320년에 세웠다고 地誌에 정리되었을 뿐이고 실제로는 이보다 후에 건립되었다고 추측된다.<sup>23)</sup> 사산 정속사기에 따라 지공이 1315년부터 1320년까지 정속사기를 중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는 朝宗의 불사로 해석해야 타당하다고 하겠다.

지공의 출생연대는 부도비나 사산정속사기로도 확정하기가 어려우나 그가 만났던 인물과 관직명, 지명 등으로도 방증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도착한 시기를 1320년 전후로 확정하느냐는 문제와 관련된 다. 지공과 접촉이 있었던 安西王이나 淮西寬, 그리고 太子延 등 인물을 검증하여 연대를 확인하려는 노력도 있었으나 역시 이론이 분분한 형편이다. 운남뿐 아니라 그와 관련된 지명과 인명 또는 시대적 상황을 천착하거나 그가 가장 오래 머물렀던 연도(북경)에서 그와 관련된 유물이나 유적을 확인하는 작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나, 이를 충족시키는 광범한 자료를 섭렵한 연구자가 참여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

지공이 고려에 도착한 연대는 비문에 의하여 泰定年間임은 확실하나 좀더 정확한 시기는 禪要錄에 의하여 1326년 3월에 城西의 甘露寺에 도착하였음이 확인된다. 이보다 1년 후에 고려에 도착하였다고 정리된 사전도 있으므로 이를 따는 논문도 있었다. 지공은 1328년 8월 이후 연도로 돌아가 1363년까지 연도를 거의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입적하였으나 논문 가운데 고려에서 입적하였다는 견해도 있었다. 지공이 고려인이라 정리된 增補文獻備考와 大正新修大藏經 등이 있으므로 이러한 오류를 자세하게 열거하기가 번거로울 정도이다.

입적한 연월은 이색이 지은 지공 비문에 실려있고 1363년 11월임에 틀림이 없다. 다만 날짜에 대해서는 20일에 입적하였다는 牧隱文藁本과 이를 토대로 선집한 東文選本과 重立碑는 일치한다. 지공의 원비에 토대를 둔 이능화본과 권상로본에는 29일이 입적일이다. 이 부분의 원비편이 현존하지 않으므로 아쉬움은 있으나 문집본보다 정확하다고 하겠다.

21) 祁慶富 「指空游滇建正續寺考」 『雲南社會科學』 1995-2. p.91.  
祈慶富 「指空의 中國遊歷考」 『伽山學報』 5, 伽山學會, 1996.

22) 祁慶富 「指空游滇建正續寺考」 『雲南社會科學』 1995-2. p. 91.

23) 許興植 『高麗로 옮긴 印度의 등불-指空禪賢』 一潮閣, 1997. pp.43-44.

지공의 세속 출신과 사상적 계보는 한국에만 전해 오는 선요록과 지공이 남긴 譯經의 서문 등에 자세히 전하고 있다. 특히 날란다 및 스리랑카에서 수학과 득도한 사실과 계승에 대해서는 어느 자료보다 자세하다. 학술대회에서는 이에 대한 정확한 위치와 현재의 상태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없었음이 아쉬웠다.

지공의 인도와 네팔, 그리고 중국에서 유력에 대해서는 지공의 행록을 수록한 이색의 비문이 가장 자세하였다. 발표회에서는 이에 대한 적지 않은 언급이 있었고, 그 가운데서도 운남지역의 유력에 대해서는 깊이 있고도 사실적인 현지조사가 뒷받침되었다. 다만 인도와 스리랑카, 그리고 네팔과 티베트에서 지공의 활동과 현존하는 유적에 대한 깊이 있는 조사는 거의 뒷받침이 못된 아쉬움이 있었다.

지공이 동아시아로 진입한 경로에 대해서는 유력의 과정과 상통하였다. 그의 진입로는 당대초반에 주로 이용하였던 실크로드와 인도의 서북 카쉬미를 연결한 육로가 아니었고, 義淨이 이용한 남중국에서 말라카해협을 지나는 해로도 아니었다. 당대 후반에 열렸던 티베트를 거치는 중간 통로였다는 지공비문에 인용된 행록을 따르고 있다. 이번 학술회의에서 이채로운 견해는 미얀마와 치앙마이를 거쳐 시쌍반나(西雙反納)를 통하여 대리와 운남을 거쳤다는 해로설이었다. 이 논문은 당시 인도 서북의 이슬람화로 이색의 행록은 실현성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해로설의 근거로 澹居考가 신빙성이 있다고 해로의 상황을 타진하였다.<sup>24)</sup> 비록 소수의 의견이지만 주목받아 마땅한 특색 있는 착안이라 하겠다.

학술 발표회에서 중국의 서남부와 인도의 지명에 관해서는 좀더 진척된 느낌이 있었다. 다만 인도의 지명에 대하여 인도의 현지 학자의 참여가 없었고, 스리랑카와 네팔, 그리고 티베트, 내몽고와 貴州省의 학자가 참여하지 못한 아쉬움은 더욱 컸다. 한국에서도 북한의 학자가 참여할 필요가 절실하였다. 다만 지공의 부도와 眞影에 대한 김상현 교수의 발표는 환등기의 고장으로 늦게야 이를 비추었으나 숨을 죽이고 한국유물의 우수성을 참관하는 모습이 진지하였다.

학술발표회를 끝내고 답사에서 정속사를 제외한 다른 지역은 지공의 유적지를 확인한 곳이 거의 없었다. 사산정속사에 있는 지공의 부도도 급조하여 1997년 3월 8일에 완공하였고, 이를 조성한 과정이나 복장품에 관한 아무런 설명도 없었다. 또한 양흥현의 사산정속사기도 급조하여 중립 중에 있었으나 장대할 뿐 식견이 있는 학자의 주의를 끌기에는 부족하였다. 다만 운남성의 풍광을 보았을 뿐이므로, 한국에서는 조금만 노력을 기울인다면 적어도 지공에 관한 주제가 담긴 답사는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유적과 유물을 갖추었다고 확신하여도 지나치지 않다고 하겠다.

한국의 문헌과 구전에 이르기까지 조사는 필자의 저술에서 대강 극복되었다. 중국에서 제시된 문헌도 새로운 자료는 거의 없었다. 다만 기존의 중국 史書를 이용하여 중국의 서남부에 관한 부분이 깊이 설명하는 수준에서 운남성사회과학원의 발표는 높은 가치를 부여할 수 있었다.

지공의 저술과 사상의 내용에 따른 깊이 있는 연구가 뒷받침될 필요가 있었고, 이에 대해서는 한국의 발표자가 각각 戒定慧의 三學에 따라 분담하였으므로 특색이 있었다.<sup>25)</sup> 지공의 사상은 현실적인 중국인의 주의를 끌기에 어려우므로 쉽고도 가슴에 닿도록 발표하는 노력이 아쉬웠다. 특히 불교사상의 이론적인 천착은 논문집에서 밝힐 필요가 있으나 중국인의 실용적이고 사회주의의 유물론 사관에 찌든 그들의 관심을 끌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지공이 번역한 불경과 저술인 선요록에 대한 사상적 자리 매김은 아직도 요원하다. 수많은 불교의 경론과 지공의 무생계와 무심선, 그리고 교학의 바탕인 반야사상을 담고 있는 그와 관련된 불서의 상관

24) 賀聖達: 印度高僧指空在中國: 行迹, 思想和影響

25) 지공의 戒律과 禪, 그리고 敎學에 대한 한국 측의 논문은 발표당시의 원고가 운남성에서 정리한 자료집에 실려있으나 이후에 보완하여 다음에 실렸다.

삼대화상 연구논문집,II 『지공-나옹-무학화상』 도서출판 佛泉,1999.

김치은 「指空和尚의 敎學思想」 위와 같은 책.

한성자 「무생계법을 통해 본 지공화상의 계율사상」, 위와 같은 책

이병욱 「指空화상 三學觀의 특징과 懶翁화상과 무학대사에게 끼친 영향」, 위와 같은 책

성과 차이점을 면밀하게 규명하는 작업이 불교철학의 과제로 등장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지공의 사상이 불교의 본령에 충실하지만 현실과의 상관성을 부각시켜 설명하기 어려운 난점을 극복할 과제가 남아 있다고 하겠다.

### 3.1997년 후 연구의 심화과정

지공에 관한 1997년의 한중학술회의는 14세기의 고승인 지공을 국제학술회의로 부각시켰다는 사실만으로 의의가 있다. 원은 유라시아에 걸친 대 영토와 다수의 칸국으로 구성되었으므로 대몽고라는 기치아래 수많은 군인과 무역상, 종교인, 그리고 사명을 띤 사신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다만 이들이 남기거나 이들에 대한 기록이 자세하지 못할 뿐이다.

남아시아에서 동아시아에 걸친 지공의 발자취는 원대에 유우라시아를 누볐던 다른 여행가와는 다른 특색을 갖추고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가톨릭문화권의 유럽이나 이슬람권의 중동에서 원의 수도였던 燕都를 왕래하였고, 원의 도사가 원정군을 따라서 유럽에 발자취를 남긴 사례였다. 마르코 폴로가 가톨릭의 포교를 위한 사신을 수행하였고, 라반서마가 이슬람권에서 燕都에 다녀갔다. 道敎의 도사로 長春眞人 劉秉忠이 유럽의 원정군에 합류하여 기록을 남겼다.

지공은 남아시아에서 불교의 포교를 위하여 동아시아를 유력하였으므로 지금까지 주목받은 다른 여행가와는 달랐다. 그는 단순한 여행이나 유력이 아니라 포교를 위하여 고려에 3년간 머물렀을 뿐만 아니라 고려에 가장 많은 유물과 유적을 남기었고, 여행이나 유력으로 그치지 않았고 짧지 않은 남은 생애를 연도에서 마쳤다. 이러한 지공의 특성을 당시의 다른 여행가들과 비교하여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지공에 관한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출생연대와 세속의 계보, 그리고 날란다와 랑카에서 수학한 스승의 학문적 특성과 사실성을 들 수 있다. 또한 그가 지나온 여러 지명과 만났던 인물, 그리고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풍습과 地誌의 가치 등을 확인하는 작업에 대한 깊은 관심과 새로운 견해가 제시되었다. 그와 관련된 한국과 중국에 대해서는 비교적 만족할 만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동남아시아와 그 주변에 대해서는 천착된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지공이 인도에서 원에 도착하기 위하여 지나온 지역에 대해서 1999년 소회의에서 깊이 있게 토론되었다. 간행되지 않은 초고였지만 段玉明은 지금까지 토의된 경로와는 다른 견해를 제시하였다.<sup>26)</sup> 이에 의하면 그의 행로는 인도의 서북에서 네팔과 티베트로 이동하지 않고 카슈미르를 지나 天山北路의 火焰山을 거쳤다고 해석하였다. 중국의 서북에는 특이한 지형이 많고 지명마저 같은 지역도 있다. 화염산을 시킴으로 이해하는 통설과는 달리 천산북로의 화염산이라는 해석이었다.

소회의에서 논의된 또 하나의 주제는 지공의 사상이 밀교와 관련되었느냐의 문제였다. 그동안 국내에서도 지공이 변역한 眞言이 소개되었으므로 밀교적 요소가 강하다는 견해도 없지 않았으나 필자는 이를 부정하였다, 운남성의 불교는 唐 이래 티베트불교와 토착신앙이 결부된 밀교적 요소가 강하였으므로 지공의 불교도 같은 특성을 강조한 논문이 있었다.<sup>27)</sup> 이와 달리 그의 사상에는 밀교적 영향이 짙게 반영되지 않았다는 반론도 있었다.<sup>28)</sup>

이색이 지공비문을 쓰면서 이용한 행록은 다양한 자연과 지명과 풍속이 소개되었으므로 앞으로 이에 대한 답사가 필요하다. 필자는 1999년 5월말 천산북로의 화염산지역을 지나보았으나 祁連山脈이나 이색의 비문에 묘사된 지역이 네팔과 시킴을 거쳐 티베트로 연결된 통로와는 다른 인상을 받았다. 이색은 하늘과 닿은 높은 산과 줄다리(懸橋) 등과는 거리가 있었다. 지공이 지나왔던 남아시아와 동아시아의 분수

26) 段玉明 「指空行實發微」 이 논문에서 지공의 행로는 지금의 통설과 거의 같으나, 인도의 서북에서 티베트로 진입하는 경로에 대한 해석이 다르다.

27) 楊學政 「指空弘揚中國西南禪學考」 『中韓韓中指空研究學術討論會資料集』 1997,11.

28) 侯冲 「指空的佛教活動真的帶有濃厚密教色彩嗎?」 雲南社會科學院 宗教研究所 『雲南宗教研究』 1997-1.

령은 앞으로 도전과 개발이 요구되는 중요한 자연자원이고 문화교류상 의미가 크므로 이를 규명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절실하다고 하겠다.

일반적으로 논문은 발표순서에 따라 선행한 논문과 선행한 논문에서 이용한 자료를 수렴하거나 심도를 더하여 해석하는 속성이 있다. 그러나 공간과 시간의 차이로 이를 충분히 극복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 지공의 연구에서도 같은 한계가 나타났다. 국내에서도 목록만 전하고 내용을 확인되지 못한 3종의 자료가 있었으므로 광범위한 협력을 통하여 찾아지기를 기대한다. 중국에서 알려진 4종의 자료는 지공이 남긴 직접 지료가 아닌 단편적인 간접 자료이지만 매우 중요하다. 특히 至仁의 澹居稿에서 언급된 指空禪師偈는 어디엔가 현존한다면 화장사에 있던 반야경에 못지않게 직접 남긴 범자자료로서 막중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지공에 관한 연구는 그와 관련된 지역이 넓으므로 관련된 국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실제로 그에 관한 자료를 보유한 한국, 일본, 중국의 학자는 물론 영국의 초기 동양학자도 논문을 써서 관심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그가 태어나고 수학하였고 유력하면서 地誌資料를 적지 않게 남긴 인도에서는 아직까지 이를 규명한 논문이 발표되었다는 소식이 없다. 지공은 인도의 불교와 힌두교에 대한 인식은 물론, 특수한 신앙과 풍습에 대해서 행적을 남겼고 李穡은 이를 토대로 비문을 지었다. 인도 학계와 지공이 지나왔던 네팔과 시킴, 그리고 티베트, 四川, 貴州, 雲南 등지에서도 현지의 학자가 지공의 유적이거나 유물을 찾아서 소개할 필요가 있다. 燕都는 지공이 가장 오래 머물렀고 終生한 곳이므로 비문헌자료인 유적과 유물도 확인될 가능성이 가장 크고, 좀더 많은 문헌자료가 나오리라 기대된다.

지공에 관해서 자료를 찾고 정리하면서 그의 저술과 사상의 특성을 자리매김하는 연구가 진척될 필요가 있다. 그가 번역한 경전과 이와 유사한 경전과의 차이점을 밝히고 그가 기존의 번역을 고치거나 보충하려고 시도한 내용을 면밀하게 밝혀낼 필요가 절실하다고 하겠다.

그에 관한 연구는 생애와 저술, 그리고 사상뿐 아니라 그의 계승자에 대해서 연구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그의 계승자는 그가 생존하였을 당시에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였으나 그의 입적 후에 대표적인 계승자인 懶翁이 王師로 책봉되었고, 白雲和尚 景閑, 大智國師 智泉, 玉田 達蘊 등의 교화가 뛰어났다. 이 가운데서 특히 나옹의 문도인 幻庵 混修와 無學 自超는 조선개국을 전후하여 가장 영향력이 있는 고승이었고, 이들의 문도는 조선초기의 불교계를 주도한 조계종의 중심적인 고승이었으나, 불교계에서조차 오랫동안 이를 간과한 경향이 있다.

懶翁은 스승인 지공이 졸업한 訖蘭다사를 회암사로 확장하여 기념사원으로 삼았다. 회암사는 조선초에 이르러 태조와 자초에 의하여 국가의 가장 큰 지원을 받은 사원이었다. 이곳의 주지는 나옹의 법통을 이은 불교계에서 영향력 있는 고승이었다. 이곳에 지공의 부도와 영정을 갖추었을 뿐 아니라 나옹과 자초로 이어지는 三大和尚의 부도와 영정을 모신 조선의 최대 사원이었고, 불교계를 탄압하는 法難도 이 사원과 함께하였으므로 조선시대 사원에서 가장 비중이 컸었다.

#### 4.1997년 이후 회암사의 발굴과 기념관의 기획

회암사의 지표조사는 일찍이 있었고, 이에 대한 보고서와 이를 토대로 정리한 사지가 간행되었으나 발굴은 없었다. 1997년 11월부터 회암사지의 발굴이 착수된 다음 4년 후부터 1차 시굴조사보고서가 간행되었다. 다시 2년 후에 확장된 지역의 발굴조사보고서가 추가되었으며 본문과 도판으로 나뉘어진 2책으로 그동안 발굴 조사보서는 다음과 같다.

『檜岩寺 I- 試掘調査報告書』 京畿道·楊州郡·京畿道博物館·畿甸文化財研究院, 2001.

『檜岩寺 II- 7·8단지 발굴조사 보고서』 본문 1책, 유물 도면·사진 1책, 경기도·양주시·경기도 박물관·기전문화재연구원, 2003.

회암사의 발굴에는 박물관과 지자체와 발굴용역이 협력하여 공사를 추진하였다. 경기도 박물관에서는 발굴결과를 종합하여 보고서를 간행하는 한편 이를 공개하는 전시회도 개최하였고, 이때 간행한 다음의 서적이 있다.

『檜岳寺』京畿道博物館 2003.

회암사는 크게 인도와 깊은 관계가 있다. 회암사는 고려 전기부터 있었으며 화엄종에 속한 사찰이었다. 지공이 왔던 시기에는 조계종에 속하였고, 그는 이곳을 답사하고 임진강과 한강사이에 위치하고 멀리보이는 삼각산의 뿌리가 나라단사와 같았다고 한다. 지공은 날란다사를 재현하기 위하여 이곳을 중요시하고 그의 계승자 나옹에게 불법을 중흥시킬 터전으로 삼아서 중창하기를 권유하였고 나옹도 후에 이를 실현하였으므로 지공을 떠나서 이해하기 어렵다. 지공은 인도출신의 고승이고 14세기 초에 인도의 동북 날란다사에서 공부하고 남쪽으로 랑카에 가서 普明의 선맥을 이었고 이를 고려로 접목시켰으므로 그의 불교사상은 남북전의 두 갈래 불교의 특성을 종합하여 고려의 조계종에 접목시켰다는 특징이 있다.

지공의 부도탑은 국내에 세 곳이 있고, 지공을 기념한 사원인 회암사의 서쪽 백호에 위치한 부도가 그 하나이고, 임진강의 북쪽 기슭의 개성의 동쪽 郊外에 해당하는 長湍 華藏寺에도 있다. 또한 묘향산 보현사에도 그의 계승자인 나옹의 사리를 함께 모신 부도가 현존한다. 운남성은 직〇이 교화한 지역을 기념하기 위하여 정속사에 지공의 부도를 1997년 5월에 급조하였다. 필자가 처음 정속사를 다녀간 시기가 1997년 3월 20일이었고, 두 달 후에 부도비를 세운 셈이다. 또한 필자가 1997년 7월에 전해준 지공의 진영 사진을 복원한 영당도 1998년에 세웠다. 지공에 관한 1997년 이전의 연구는 필자의 저술에서 소개하였고 학술회의 이후의 연구는 적지 않게 추가되었다. 국내에서도 지공에 관한 연구는 당시의 발표논문과 이후의 연구가 추가되었다. 이러한 연구는 문헌을 중심한 분석과 답사에 불과한 지표의 조사에 벗어나지 않았다.

지공에 관한 연구는 그의 감화를 받은 계승자인 나옹을 위시한 고승으로 확산되었다. 그러나 이들에 관한 연구는 문헌을 중심으로 진전되었고 발굴에 의한 성과와 접목되지 않았다. 역사고고학의 성과로는 회암사의 발굴이 단연 돋보인다. 회암사의 유구와 유물은 그동안의 문헌연구를 검증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참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향에서 경기도박물관에서 처음 시도하였고, 발굴조사와 문헌연구를 합쳐서 간행하기도 하였다. 이를 전후한 발굴보고서가 두 차례 간행되었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문헌연구와 발굴성과의 상관성에 대하여 살피도록 하겠다.

회암사는 날란다사와 입지조건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회암사지는 13도 가량의 경사지이고 7단으로 건물을 세웠다. 나라단사는 평지에 가깝고 중앙의 중심 건물은 부처를 모신 사원도 포함되었지만 대부분의 건물은 강당과 기숙사가 많은 교육기관에 중점을 두었으므로, 사원이라기보다 대학의 특성이 강하다. 이와 달리 회암사는 일반 사찰의 삼단형식이 핵심부를 이루고 신도를 맞이하는 교화부와 사원의 관리를 담당한 운영부로 나누어 분석하면 편리하다.

지금까지 발굴은 핵심부에서 시작하여 교화부를 거쳐 운영부로 옮겨가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으며 유구의 교란도 이들 순서로 정도가 심하다. 또한 사찰의 기원과 유물의 시대별분도 이와 상통한다. 다시 말하면 핵심부는 적어도 고려전기의 유물이 많고 고려말과 조선전기에 밀집되었다. 교화부의 유물은 조선초부터 기원하였고 운영부도 상통하지만 교란된 정도가 심하다.

앞으로는 회암사의 발굴은 이미 발굴된 지역의 보존방법과 아울러 주변부분에 대한 발굴을 확대하는 두 가지 방향이 함께 진전되었으면 한다. 보존은 잔디를 입혀서 유구의 일부를 드러내면서 이곳을 답사가 가능하도록 보존하는 황룡사지의 형태를 따르는 방법이다. 이를 위해서도 가람의 담장의 보수, 하수구, 그리고 사원의 구역과 관련된 남부와 남서부로 발굴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발굴결과로 확인된 유구와 유물을 종합하고 분석하여 이후의 기념관 설립과 복원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곳의 유구와 유물이 우리나라의 같은 시기에 존재하였던 다른 사찰과 같은 점도 많



지만 다른 점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원인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필자가 보기에는 핵심부의 제1단에 正殿은 다른 시원에서 보기 어려운 국왕과 관련된 건물이다. 이를 국왕이 상주한 건물로 보려는 경향이 있으나 진전이나 국왕이 회암사에 이르면 잠시 머무는 시설이라고 보고 싶다. 국왕은 내회암에 궁궐을 지어서 그곳에서 머물렀다고 짐작된다. 내회암의 발굴도 중요하고 그곳 주민들의 견해로는 그곳에서도 초석이 있었다고 한다.

다음으로 범자가 쓰인 와당이 많이 발견되었고 범자도상의 조각의 파편도 적지 않게 출현하였다. 이는 지공이 범자로 패엽에 썼을 남겼을 정도로 범자의 사경을 남겼다는 기록이 보이고 실제로 범자 금강경의 일부가 화장사에 1세기 전까지 남았을 정도로 인도불교의 직접 전한 인물이었다. 범자도상은 만다라의 일부이고 범신사상과 연결되는 화엄사상의 일부였다. 지공은 화엄사상을 선사상과 접목시켜서 이후의 한글 불교가 통합적인 경향으로 촉진시킨 불교사상가로 주목되는 자료이다. 회암사는 이를 고스란히 전하는 셈이다.

회암사의 발굴에서 유물로 고려말의 청자와 조선전기의 분청사기, 기와 불상의 조각 등이 많이 출현한 점은 같은 시기의 다른 사찰의 출토유물과 다름이 없다. 다만 작은 소상이 많고 특히 원숭이 등 동물의 조각은 스리랑카에서 득도한 지공의 남전불교의 영향과 상통하고 그가 머물렀던 운남성의 사산 정속사에도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이를 국제적으로 안목을 넓혀서 규명할 필요가 있다.

회암사에는 부도탑을 제외한 다른 탑은 발견되지 않았다. 사리전이 있으므로 불탑을 제외한 통도사의 가람배치와 상통한다. 진신사리글 모신 사리전이 불탑을 대체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회암사는 한국의 날란다라 불릴 정도로 날란타를 재현하는 의지가 엿보이며, 날란타의 유적을 참조하여 이를 기념관이나 복원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발굴을 담당한 기관과 단체는 발굴한 부분의 보존과 발굴의 확대라는 두 가지 과제를 맡고 있으며, 역에 덧붙여 발굴로 드러난 회암사의 유구와 유물을 전시할 기념관의 건립에 500억원의 예산을 상정하였다. 필자는 발굴을 착수하기 앞서 회암사에 대한 연구결과를 간행하였고 5차년도 발굴의 직전에 자문으로 초청되었다. 두 차례의 현장회의에 참석하였고, 기념관의 용역업체인 '미래세움'과도 두 차례 자문에 응하였다. 이에 대한 자문내용을 정리하여 소견을 공개하고자 한다.

유적의 발굴이나 기념관의 건립은 앞으로 문화산업으로 활용에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회암사발굴기념관과 유적지의 보존은 회암사를 입체감을 느끼며 체험하도록 현장학습을 겸한 관광자원이다. 회암사 중건의 계기를 이룬 지공선사는 나란타대학의 졸업생으로 남전불교의 선택과 북전불교의 학문을 계승하여 고려에 전한 세계사에서도 몰랐던 중요한 인물이다. 그의 계승자인 나옹이 중건하고, 조선태조의 왕사인 무학자초가 주석하고 이후에도 고승대덕이 배출되어 고려말과 조선전기를 대표하는 사원이었다. 이에 걸맞은 다음 사항에 유념하기를 기대한다. 29)

1) 전시관 건물이 주는 회암사의 상징에 대한 이미지를 살릴 것.---일반사찰과의 공통점보다 회암사만이 가진 특수성--나란타사의 재현을 위하여 회암사를 창건.

2) 문화유적에 걸 맞는 전시관의 규모와 목적을 설정할 것---세계 불교대학의 최고봉이었던 날란다사를 연상하여 재구성할 것. 실제의 유적보다 규모와 목적이 약하다.

3) 시설물의 상징성과 진입방면에서 보기에 인상이 남도록 전통성을 살릴 것-- 발굴된 유물의 특성은 남전불교의 요소도 강하므로 이를 반영한다.

4) 전시실과 박물관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방향을 설정할 것 --모조품의 전시인가 진품의 전시와의 차이.

29) 회의일자: 2004.12.2 (목) 11:00

장소: 회암사지 발굴단 임시 회의실

회의명: 회암사지 전시관기본설계 전시분야 자문회의

5) 발굴품 이외에 회암사와 관련된 많은 자료를 충분하게 수용할 계획의 여부를 결정할 것--회암사의 위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아니면 회암사의 발굴결과만을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

6) 현존하는 회암사의 참여와 협조의 여부--회암사의 본사인 봉선사와 조계종총무원의 협력을 받아 앞으로의 보존과 관리의 협조를 염두에 둘 것인가의 논의가 필요.

회암사기념관 건립 용역업체인 미래세움에게 세 부문으로 나누어 논의를 심화시키기로 제안하였고, 필자가 항목에 따라 좀더 견해를 진전시켜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였다.<sup>30)</sup>

### 제1부 전시 내용 관련

- 회암사의 국제적 사찰로서의 위상을 강조해야 하며, 회암사의 중요성은 다음 3가지 방향이 조화되도록 조절해야 하겠다.

1) 지공의 뜻을 살려 인도불교의 정수인 날란다사의 법통과 전통을 직접 계승한 유일하고도 가장 오래된 사원임을 부각시켜야 하겠다.

2) 고려말부터 조선전기의 불교계를 대표하는 최대사찰이며 왕실의 후원을 받는 사찰이었다.

3) 한국의 선맥을 단절하지 않고 계승한 사원으로 정통성이 있다,

4) 회암사는 세계불교사를 고쳐 써야할 어마어마한 의미가 담겨있는 사원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으므로, 회암사지 전시관은 성보박물관의 성격을 포함하여 이에 알맞은 의미를 담아야 함.

5) 회암사를 중심으로 조계종의 법통을 규명하여도 되지만, 조계종의 의견의 조정이 필요하며, 회암사가 조계종 법통의 중심적 이론을 제공할 수 있음.

6) '불교계 개혁의 메카'라는 표현을 썼으나, 회암사를 '불교계 정화의 중심지'라고 표현하는 편이 옳겠다.

7) 이성계의 궁궐지는 내회암으로 추정되므로 현재의 위치는 사적지로 삼고 내회암에 현대적 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음. 앞으로 회암사의 복원이나 발굴기념관 주차장을 내회암을 발굴하여 정리고 이를 이용함이 필요하다.

### 제2부 전시 연출 관련

1) 전국에 흩어져 있는 삼화상 관련 유물과 유적을 모두 조사하여야 함. 유물을 구입, 기증 또는 모사하여 함께 전시하여야 효과적이리라 간주된다.

2) 영정 모사는 어떤 영정으로 할 것인가를 조사하고 비교하여 표준영정을 결정하여야 함. 영정의 모습과 그 속에 담긴 사실성을 반영해야 함.

3) 지공과 관련된 많은 부도와 유적이 전국에 흩어져 있으므로 이를 문화산업에 이용해야 함.

4) 여러 지역을 유력하면서 교화한 지공의 일대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제작하여 동화상의 입체적 활용이 필요함.

### 제3부 회암사의 국제적 위상과 가치에 대한 인식의 홍보

1) 지공의 발자취를 따라 인도 날란다사, 중국 운남성, 티베트 등을 답사하여 세계의 각지에 흩어진 지공관련 유적을 수집하고 한국의 지공 유적이 가장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일목요연하게 제시할

30) 일시: 2005년 3월 24일 한국학 중앙연구원 허홍식교수의 자문

미래세움: 전시사업본부 전시주임 신민경

자문장소: 분당구 운중동 50번지 한국학중앙연구원 남재 205호실

필요가 있음.

2) 회암사에 지공의 부도와 영정이 있고, 날란다사의 후신이라는 사실은 한국뿐 아니라 세계사의 일부로 부각시킬 중요한 소재이다. 특히 남아시아와 동아시아의 전통문화가 직접 마주친 증거로서 한국에 남아있는 가장 생생한 증거이다.

3) 지공에 관한 자료가 극히 빈약한 중국의 운남성에서도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였고, 지공의 유적을 복원하여 관광문화사업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한국에는 풍부한 자료를 보유하면서도 이를 보존하거나 복원하여하여 구체적인 문화산업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4) 전체적으로 회암사와 지공의 유적에 대한 보호와 복원 사업의 계획이 소규모이고 국제적인 감각과 문화산업으로 활용에 대한 감각과 기획에서 중국의 일개지역인 운남성보다도 수준이 떨어진다.<sup>31)</sup>

이상과 같은 필자의 제안은 1) 지공과 회암사의 중요성의 반영, 2) 회암사의 본사인 봉선사와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과의 협조, 3) 지공이 유력한 각 지역을 포함한 남아시아와 동아시아를 배경으로 포함한 영상 실록의 제작으로 다시 압축할 수 있다.

#### 맺음말-연구의 새로운 확장을 향하여

필자는 1997년 말에 운남성 사회과학원에서 연구보고서를 모은 자료집을<sup>32)</sup> 우편으로 받아서 다음해 1월 5일 단장을 받았던 性陀스님에게 전하였다. 1998년 9월부터 1년간 북경대학에 머물 기회를 이용하여 지공이 교화하면서 지나갔거나 머물렀던 중국의 여러 지역을 조사하였고, 운남성에도 두 차례 방문하여 날짜로 합치면 거의 한 달간 머물면서 지공이 교화했던 지역을 답사하고, 그곳에서 진척된 연구 상황을 살폈다.

운남성 사회과학원에서 국제학술학술회의가 있었던 1998년 말 하요화 사회과학원장과 양학정 종교연구소장으로부터 동연구소에서 간행하는 학술지 雲南宗教研究를 받고 학술회의를 요약하여 소개한 글과 학술회의에서 발표한 논문에서 학술적 가치가 높은 몇 편의 글을 뽑아서 수록하였음을 확인하였다.<sup>33)</sup> 한국에서도 회암사지를 발굴하여 조사하고 있으며, 학계에서도 지공은 물론 나옹과 자초를 위시한 지공의 감화를 받은 고승과 그들의 계승자에 관심이 확대되고 있음을 알렸다.

필자는 1999년 북경대학을 떠나 귀국하기에 앞서 8월초에 운남성 사회과학원을 다시 방문하였다. 8월 3일에는 사회과학원의 학자 17인과 소회의를 가졌고 한국에서 지공연구 진전과 앞으로 규명해야 할 쟁점을 요약하여 발표하였다. 도합 5시간 정도 의견을 나누었고 저녁에는 만찬을 겸하여 오랜 시간 지공 연구에 관한 운남성 학계와 성정부의 관심과 한국이나 북경에서 다시 학술회의가 개최되도록 협력하자는 의견을 나누었다.

필자는 1999년 8월말 귀국하여 회암사의 주지 仁默스님에게 그동안 중국에서 지공에 대한 연구를 알렸다. 국내에서 삼대화상연구논문집 제2집이 간행되었음을 들었고, 10월 중순에 이를 기증 받아 그동안 국내의 연구 상황과 학술회의에서 발표했던 운남성 학자의 논문도 실렸음을 확인하였다.<sup>34)</sup> 대체로 운남

31) 필자는 원인을 다음의 몇 가지를 지적하였다.

- 1) 지자체 담당자의 지식과 안목이 부족함
- 2) 계획이 국지적이고 소규모임
- 3) 발굴에 의존한 전시와 진열에 안주하려는 자세임
- 4) 두더지고고학에 의존하는 단계를 벗어나서 대상의 국제성과 불교계의 중요한 과제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32) 楊學政 主編 『中韓韓中指空研究學術討論會資料集』 1997, 11. 이 자료집은 인쇄물이 아니므로 널리 보급되지 못했지만 당시의 발표요지를 있는 그대로 반영하였다.

33) 雲南省社會科學院 宗教研究所 『雲南宗教研究』 1997-1, 1997-2.

성의 학자의 글은 그대로였으나, 국내 학자가 발표한 내용은 골격을 유지하면서도 적지 않은 부분을 보충하였고, 그밖에도 懶翁과 自超에 관한 논문을 추가하였다.

이 글에서는 운남성 사회과학원에서 1997년 8월 열렸던 국제학술회의의 경위와 1999년 8월에 다시 열렸던 소회의에서 수렴된 연구 성과를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이후에 국내외에서 진전된 연구결과를 아울러 소개하면서 앞으로 초점을 맞춰서 해결해야 중심으로 쟁점과 새로운 연구방향에 대해서 모색하였다.

지공은 13세기 초 인도와 스리랑카의 불교사상을 저술과 실천으로 동아시아의 고려에 집중적으로 전하였다. 경유한 지역에 관해서 적지 않은 내용을 전하는 그의 비문은 중요한 지지의 자료이다. 그가 남긴 문헌과 그와 관련된 유물은 한국에서 보물로 지정되어 보존된 사례가 많다. 그러나 유물과 유적에 대한 복원과 활용은 극히 일부만 보유한 중국의 변방인 운남성보다 뒤떨어진다.

지공에 관한 연구는 여러 방향에서 더욱 깊이를 더할 필요가 있다. 그의 생애와 유력한 지역에 관한 부분과 인도와 스리랑카, 네팔은 물론 원의 중심지였던 燕都와 티베트에 이르는 각지의 연구가 아직도 불확실한 부분이 많다. 한국에서도 휴전선 너머의 개성과 금강산과 묘향산은 그의 유적이 밀집된 지역이므로 참여와 협력이 절실하다.

그는 고려에서 가는 곳마다 부처나 달마가 환생하였듯이 환대를 받으면서 원기 왕성하게 여러 지역을 끊임없이 방문하였으므로 앞으로 좀더 많은 유적과 유물이 증가할 전망이다. 최근에 해인사에서 발견된 불복장 자료에 이르기까지 그에 관한 자료가 속속 증가하고 있을 정도이다. 특히 그의 대표적 계승자인 나옹과 백운화상 景閑에 대한 자료와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에 관한 불교계의 인식과 연구에 관한 자료의 제공과 협력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그는 생애의 중반과 후반을 중국에서 대부분을 보냈고 특히 연도의 法源寺에서 가장 오랜 기간 머물렀다. 한국에서는 법원사에서 간행된 禪要錄을 중간하였음이 확인되지만 아직껏 중국에서는 그의 저술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어렵다. 필자는 두 가지 방향에서 원인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하나는 원대의 불교계가 일반적으로 지공의 사상에 대해서 고려보다 친근감을 느끼지 않았다는 관점이 있다. 다른 하나는 그가 남긴 유적과 유물이 적지 않았으나 원말 이래 최근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학계가 불교의 일부분인 그의 유적과 유물에 관심을 적게 기울인 때문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다만 북경에 머물던 시기보다 앞서 짧은 기간 머물렀던 운남성에서 지공의 탑과 기념비를 세우고 한중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특기할 현상이라 하겠다.

지공의 유물이 밀집되고 비교적 보존이 잘된 한국에서도 그에 관한 연구는 호기심의 단계를 지나 이제 집중적인 연구의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하겠다. 그동안 지공과 그 계승자에 관한 연구가 부진하였던 원인은 한국불교를 주도하는 대한불교조계종의 법통에 관한 인식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하겠다. 17세기부터 불교계는 태고의 법손이 계승되었다는 태고법통설이 주류를 이루었다.<sup>35)</sup>

필자는 이와 달리 나옹법통설을 제시하고<sup>36)</sup> 나옹의 스승과 문도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였다. 나옹의 스승은 조계종의 闍崛山門과 臨濟宗 楊岐派의 平山處林의 영향이 크지만 인도출신 지공의 無心禪과 無生戒, 그리고 般若思想은 이후의 불교계를 지탱하였다고 해석하였다. 이후에는 그동안 활발하였던 태고에 대한 연구는 주춤한 대신에 나옹과 그의 문도에 대한 연구가 활기를 띠었다.<sup>37)</sup> 나옹의 법통설이 좀더 보

34) 삼대화상 연구논문집,II 『지공나옹-무학화상』 도서출판 佛泉,1999.

35) 月渚道安 『佛祖宗派之圖』 妙香山 普賢寺開版,1 688 .  
獅巖采永 『海東佛祖源流』 全州 松廣寺開版, 1764.

36) 許興植 「지공의 사상과 계승자」 『겨레문화』 2, 1988.  
許興植 「懶翁의 思想과 繼承者(上, 下)」, 『韓國學報』 58-59, 一志社,1990.

37) 李哲憲 「懶翁慧勤의 法脈」 韓國佛敎學 19, 1994.  
李哲憲 「懶翁慧勤의 研究」 東國大博士學位論文 1997

편성을 가지려면 문도의 계승과 함께 指空의 사상이 조선시대를 통하여 고승들에 의하여 실천의 지표로 사용되었음을 깊이 있게 규명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불교계의 관심이 강화되고 많은 문헌자료와 영정 및 유적이 체계적으로 조사되어야 하겠다. 그가 조선시대의 불교계에서 의식과 숭배의 중요한 대상이었으면서도 그 원인에 대해서 불교사에서 깊이 있게 밝혀야 할 필요가 있다. 뿌리를 가진 문화란 자신의 주변에서 관련된 사실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이를 설명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어 생명력을 잃지 않아야 한다. 가장 비참한 문화는 이해와 음미, 체계 있는 설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몸짓과 소리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감성에 호소하면서 사그라지는 현상이라 하겠다.

지공의 저술과 실천적 계율을 그의 사상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은 불교계에 새로운 주제로서 부각될 필요가 있다. 그가 번역한 무생계경과 저술한 선요록, 그리고 문도들이 보여준 그의 실천방향은 계정혜의 삼학에 토대를 둔 초기 선종과 상통한다. 사상이란 원초성에 뿌리를 두고 현실을 살아가는 실천의 방향을 설정하는 과정에 기여한 역할이 있었다고 하겠다.

필자는 2006년 2월 인도의 수도 델리의 델리대학에서 2월 날란다대학과 지금까지 확인되는 그곳의 최종 졸업생인 지공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적어도 14세기까지 날란다대학이 존재하였고 지공이 출생하고 성장과 수학기간을 보내고 인도의 여러 곳을 유력하면서 체험을 남긴 풍속과 신앙의 기록을 전하였다. 그곳 학자들은 처음 듣는 이야기이고 매우 흥미로운 새로운 사실이라고 인정하였다. 지공의 기념사원인 회암사와 영정, 그리고 그의 생애를 적은 비문과 무덤인 부도, 그리고 초상화를 여러 곳에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제대로 알리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고 하겠다.

---

黃仁奎 「無學大師研究」 東國大博士學位論文 1997  
俞瑩淑 「高麗後期禪宗史研究」 東國大博士學位論文 1997  
金昌淑 「懶翁의 禪思想研究」 東國大博士學位論文 1997  
황인규 『고려후기 조선초 불교사연구』 혜안, 2003.  
황인규 『고려말 조선전기 불교계와 고승 연구』 혜안, 2003